

사상체질별 건강수준에 따른 맥상, 안면, 피부, 음성의 물리량 도출을 위한 문헌고찰연구

이재철 · 이유정 · 김재욱 · 김상길 · 강남식 · 김종열 · 김상혁*

한국한의학연구원

Literature Study for Categorizing Physical Properties of Face, Pulse, Skin and Voice Based on Health State of Sasang Constitutions

Jae Chul Lee, Yu Jeong Lee, Ja Euk Kim, Sang Kil Kim, Nam Sik Kang, Jong Yeol Kim, Sang Hyuk Ki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suggests the concept of health condition which is owned of different properties by each Sasang Constitution. But SCM theory has concentrate to explaining different symptoms that distinguish health condition, not much concerned with practical methods like face features, pulse diagnosis, skin surface properties and voice features. Physical properties of practical diagnosis methods from literature finding have been researched. As a result, complexion and face moisture were described to be physical properties related to health State. In scope of pulse diagnosis, depth, rate, contour, width and pressure are related. Skin surfaces' elasticity, moisture, fraction properties were also suggested as factors of health State of Sasang Constitution. We assume that this study would contribute further studies for objectifying and quantifying diagnosis methods to evaluate health state grades of Sasang Constitution.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pulse, face, skin, voice, physical properties, health state

서 론

사상의학은 증치의학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체질유형의 개념을 도입한 의학¹⁾으로 사상의학은 동일한 증상일지라도 체질에 따라서 다른 병리 기전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체질별로 건강을 나타내는 진단 지표도 차이를 보인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命脈實數를 제시했으며, 이는 神仙·淸郎·快輕·康寧·外感·內傷·牢獄·危傾 8가지로 나뉜다. 이는 偏大之臟에 대한 偏小之臟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건강인과 비건강인의 상태를 척도로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다.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에서는 각 體質正氣를 의미하는 保命之主를 제시하여 이의 정상적 기능 여부에 따라 건강상태와

질병의 輕重緩急이 달라진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존 의학에서는 볼 수 없는 사상의학만의 고유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 또한 『東醫壽世保元』에서 完實無病을 통해 병증을 통한 체질별 건강을 판단하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질별 건강수준의 진단은 四診 중 問診에 해당되는 完實無病 및 素證·病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望診, 聞診, 切診에 해당되는 안면, 맥진, 피부, 음성 등을 통한 건강수준의 진단은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진단요소별 물리량에 대한 연구도 미비하다.

진단요소별 물리량의 도출은 체질별 건강수준 진단 표준화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진단 표준화는 사상의학의 고유한 이론이 반영된 진단기기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선, 안면, 맥진, 피부를 통해 건강수준을 진단할 때 활용되는 물리량의 형태를 도출해야 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헌 탐색을 통해 일정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교신저자 : 김상혁,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 E-mail : kataz@kiom.re.kr, · Tel : 042-868-9238

· 접수 : 2011/06/29 · 수정 : 2011/07/20 · 채택 : 2011/08/0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사상체질별 건강수준에 따른 안면, 음성, 피부, 맥진에 대해 언급한 서적 및 국내 학위·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적은 1990년 이후 출판된 서적 중 체질별 안면, 맥진, 음성, 피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고, 논문은 Oasis(<http://oasis.kiom.re.kr>), DBPia(<http://www.dbpia.com>), RISS(<http://www.riss4u.net>), KISS(<http://kiss.kstudy.com>)에서 '사상', '체질'을 기본 단어로 하여 각각 '안면', '음성', '피부', '맥진'을 함께 검색한 후 중복 게재된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색결과 단행본 총 10건, 논문 총 267건이 분석 대상에 해당되었고 그 중 체질별 건강에 따라 안면, 맥진, 피부, 음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7건(서적 3, 보고서 1, 논문 3)을 대상으로 문헌 고찰을 시도했다.

결과 및 고찰

1. 안면

Table 1에서와 같이 안색은 체질과 상관없이 건강수준을 판별하는 물리량으로, 유수분은 태음인과 소양인의 건강수준을 진단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났다. 안색은 윤기의 유무와 자주색이

나 백색 등 밝은 색을 띠는 것이 건강이 양호한 증상이며 어두운 색이 대부분 건강이 불량한 증상으로 나타났다. 소양인, 태음인은 기름기가 많은 것은 건강이 불량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태음인은 氣液代謝가 원활하지 않아 汗液이 잘 通暢하지 않는 문제로, 소양인은 火熱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태음인의 경우 안면이 黃赤黑한 것으로 燥證의 유무를 나타내었는데, 燥證의 유무에 따라 건강수준을 구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며, 다만 건강 불량일 경우에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보인다. 안색은 기존 한의학에서도 인체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중시한 방법으로, 『東醫寶鑑』 「審病門」에서 『靈樞』를 인용하여 의사의 진단수준 중 色을 통해 아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²⁾. 이는 얼굴 형태에 비해 안색이 몸의 상태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맥진

유 등⁴⁾은 맥상을 일차적으로 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로 귀납한 결과 맥의 깊이·빠르기·힘·폭·길이 5가지가 맥상을 구성하는 주요 물리량이라고 하였다. Table 2에서와 같이 건강수준을 판별하는 데 사용된 맥상의 물리량은 맥의 힘, 폭, 길이로 나타났다. 맥의 힘, 폭, 길이는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⁸⁾ 등은 관찰연구를 통해 한의사 집단이 1566여명을 대

Table 1. Face Feature and Its Physical Properties Which are Used to Diagnose Health/Poor Health State of Four Sasang Constitutions

	소음	태음	소양	태양	물리량
건강 양호	○ 안색이 윤기 있고 푸른색 (1-90)	○ 안색이 윤기 있고 자주색 (1-90)	○ 안색이 담담한 자주색 (1-90)	○ 안색이 담담한 백색 (1-90) (4-431) (2-90) (3-157)	안색
건강 불량	○ 안색이 희거나 검은색 (1-90) ○ 소음인 한증에서도 매부리코 (2-109)	○ 안면에 기름기가 많음 (1-90) ○ 급성기 중풍·입술 청자색 (5-14) ○ 얼굴빛이 황적흑한자는 조증 (4-398) ○ 얼굴빛이 청백한 자는 조증이 없는 경우가 많음(4-398)	○ 안면에 기름기 많음(1-90)	○ 안색이 흑색 (1-90) (4-431) (2-90) (3-157)	안색 유수분
번호	저자	문헌명	출판사	연도	
1	김종열	사상체질진단 객관화 기초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6	
2	류주열	동의사상의학강좌	대성문화사	1998	
3	전국한외과 대학 사상의학교실	개집중보사상의학	집문당	2006	
4	유준상	사상체질과 건강	행림서원	2009	
5	여현수, 이시형, 하유근, 정기용, 백종우, 최유경, 김동우, 박종형, 조기호, 고성규, 한창호, 방옥선, 전찬용	급성기 중풍 환자의 사상체질과 안면피부에 관한 상관성 분석	대한중풍학회지	2007	

Table 2. Pulse Feature and Its Physical Properties Which Are Used to Diagnose Health/Poor Health State of Four Sasang Constitutions.

	소음	태음	소양	태양	물리량
건강 불량	○ 간혹 表病에서 맥이 강하게 느껴짐 (1-46) ○ 太陽病證 脈浮, 陽明病證 脈洪大, 太陰病證 陽微陰澁, 少陰病證 脈微細, 厥陰病證 脈微緩. 表病 浮微緩, 弦, 澁, 微弦, 虛數, 大, 沈微而不數, 微浮, 浮緩, 沈短. 裏病 微而欲絕, 伏, 沈, 沈而遲, 細沈數, 沈細而疾, 細小沈緊, 微弱(2-28) ○ 腎受熱表熱病, 鬱狂初證에서 太陽病 초기는 맥이 浮, 浮而緩, 下焦血證에 微而沈, 亡陽初證은 陽浮而陰弱. 胃受寒裏寒病에서 太陰證은 맥이 微, 沈細, 少陰證은 微細, 沈細沈數(3-36)	○ 맥이 약할 경우 表證인 胃腕寒證의 경우도 있음 [弱脈] (1-46, 1-79) ○ 太陽病證 脈浮, 陽明病證 脈洪大. 裏病 洪大, 滑, 微澁, 直而疾, 細而強, 澁, 大, 細小, 緊實而數, 沈澁而微(2-28) ○ 胃腕受寒表寒病은 脈이 浮, 浮緊. 肝受熱裏熱病에서 燥熱證은 脈이 洪大, 長, 長大, 沈 緊實而數, 浮滑(3-36)	○ 소양인 陰虛午熱증에 맥이 약할 수 있음 (1-46) ○ 열이 나고 추위를 싫어하며 맥이 浮하고 緊하며 몸이 아프며 땀이 나지 않으면서 煩躁한 것은 곧 소양인의 비가 찬 것을 받아 길이 찬 병임 [부맥/긴맥] (1-306) ○ 太陽病證 脈浮, 少陽病證 脈弦細, 陽明病證 脈洪大. 表病 浮緊, 沈實有力, 數, 沈緊, 弦細, 裏病 微弱, 浮, 伏, 滑(2-28) ○ 脾受寒表寒病에서 少陽傷風證은 맥이 浮緊, 浮弦, 沈實有力, 亡陰證은 脈이 浮大數, 洪大, 弦細. 胃受熱裏熱病에서 胸膈熱證은 脈이 浮, 洪實而數, 洪大, 陰虛午熱證은 虛濡而數(3-36)	○ 표병 脈澁(2-28) ○ 外感腰脊病은 맥이 緩澁, 外感輕證에는 浮芤(3-36)	맥의 빠르기 맥의 깊이 맥의 형태 맥의 힘 맥의 폭 맥의 길이
번호	저자	문헌명	출판사	연도	
1	유준상	사상체질과 건강	행림서원	2009	
2	김인태,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脈診의 四象醫學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	
3	김동준, 김정렬, 김달래	四象體質病症과 脈診의 相關性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한약침학회지	2003	

상으로 진단한 맥진 자료 분석을 통해 실맥/장맥/대맥, 허맥/단맥/세맥이 각각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진단되는 것을 보고 하였다. 두 맥상군은 각각 실증과 허증을 대표하면서 허실맥은 맥의 힘, 장단맥은 맥의 길이, 대세맥은 맥의 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추가 연구를 할 경우 체질별 건강수준에 따른 맥상의 차이는 주로 실맥군과 허맥군의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맥의 깊이와 빠르기는 건강수준을 판별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맥의 깊이와 빠르기에 해당되는 浮沈遲數맥이 表裏寒熱을 대표하고, 表裏寒熱이 체질에 상관없이 모두 나타나는 병증 범주이기 때문에 해당 물리량의 건강수준 반영 정도는 추가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문헌에서 건강수준에 따른 맥진 소견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한 체질별 맥상과 상반되거나 각 체질별 병증론에 인용된 『傷寒論』 및 宋·元·明 의가들이 언급한 병증의 맥상을 건강 불량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소음인은 강한 맥이 건강 불량이고, 태음인·소양인은 약한 맥이 건강불량의 증상이라고 한 것에 반해 『東醫壽世保元』 내 병증에 언급된 맥진 소견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좀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건강수준을 진단하는 명확한 맥상의 물리량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東醫壽世保元』에서 浮沈遲數 맥 외에는 반드시 궁구할 필요는 없다³⁾고 한 것과, 체질진단에서도 태음인과 소음인의 맥상 특징³⁾을 간략히 제시하고 건강수준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부

한 의사가 체질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피부의 물리량으로는 두께, 탄성, 마찰력, 경직도 등⁵⁾이 있다. Table 3과 같이 체질별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피부의 물리량으로 탄성, 마찰력, 유수분이 도출되었다. 피부진단은 尺膚진단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東醫寶鑑』 審病門에서 『靈樞』·『論疾診尺篇』를 인용하여 尺膚의 매끄럽고 거침, 윤택함, 한열감으로 진단을 하는 내용²⁾이 실려있다. 이는 문헌 검색에서 나타난 물리량의 특성과 부합한다. 태음인은 피부의 유수분이 건강상태를 가늠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음인의 完實無病이 '汗液通暢'인 것과 부합한다. 태음인과 소양인은 많은 기름기를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안면과 마찬가지로 체질별 대사과정 상의

한열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가 강하고 堅密하면 큰 병이라고 한 것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의 '陽剛堅密'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피부의 특성으로 살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陽'은 '1) 별, 양지(陽地) 2) 해, 태양(太陽) 3) 양, 양기(陽氣) 4) 낮, 한낮 5) 남성(男性) 6) 하늘 7) 인간(人間) 세상(世上) 8) 음력(陰曆) 시월(十月)의 띠 이름 9) 봄과 여름 10) 돌을새김 11) 나라 이름 12) 거짓으로 13) 따뜻하다, 온난하다(溫暖·溫煖-) 14) 가장하다(假裝--: 태도를 거짓으로 꾸미다) 15) 군세고 사납다 16) 드러내다 17) 밝다 18) 밝다 19) 선명하다(鮮明-) 20) 양각하다(陽刻-)'의 뜻⁷⁾이 있으며 여러 의미 중 '피부'라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의 관련 문헌이 '피부'로 해석하고 있지만, 『四象要覽』에서는 '陽剛堅密'을 체질별 性質을 구분하는 요소로 해석⁸⁾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피부가 강하고 堅密하다는 것을 건강 수준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부의 두께와 경직도는 건강수준을 판단하는 물리량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는 피부 두께나 경직도에 비해 피부의 탄성이나 마찰력, 유수분은 영양 상태나 피로 정도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음성

음성은 체질진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容貌詞氣'에 해당된다. 그러나 체질 특성을 구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고, 건강수준별 차이를 언급한 문헌은 찾지 못하였다. 이는 음성이 개인 간 또는 개인별로 편차가 크며, 이를 객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체질별 건강수준에 따른 안면·맥진·피부의 진단은 동의수세보원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새로이 찾은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체질별 건강수준이 동의수세보원이나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에서도 개념만을 제시했을 뿐, 체질진단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언급된 내용도 대부분 소증과 병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상태는 선천적인 체질과는 달리 몸 상태에 따라 가변적인 요인이며, 이에 건강수준을 반영하는 물리량도 일생동안 잘 변하지 않거나 변하는 데 오랜 시일이 필요한 것보다는 쉽게 변하는 진단요소들이 물리량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으며, 이 외에 다른 특성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3. Skin Feature and Its Physical Properties Which Are Used to Diagnose Health/For Health State of Four Sasang Constitutions.

	소음	태음	소양	태양	물리량
건강 양호	○ 윤기 있는 푸른 색이면 무병임(1-90) ○ 피부가 강하고 견밀 하면 완실할 것임 (2-72)				피부의 탄성·마찰력
건강 불량		○ 병이 있으면 기름기가 많음(1-90) ○ 피부가 강하고 견밀 하면 큰 병임(2-72) ○ 피부가 바짝 말라서 땀을 내려고 해도 땀이 나지 않고 더운데 있어도 땀이 나지 않으면 큰 병임(2-149)	○ 병이 있으면 기름기가 많음(1-90)		피부의 탄성·마찰력 피부의 유수분
번호	저자	문헌명	출판사	연도	
1	김종열	사상체질 진단 객관화 기초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6	
2	류주열	동의사상의학강좌	대성문화사	1998	

결 론

각 진단요소별로 안면에서는 안색·유수분, 맥진에서는 맥의 깊이·빠르기·세기·너비·길이·형태, 피부에서는 탄성, 유수분, 마찰력 등이 체질별 건강수준과 관련 있는 물리량으로 나타났다. 미래의학의 추세는 개인별 맞춤의학·예방의학이며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의학이 사상체질의학이다. 이제마가 제시한 명맥실수의 개념을 활용하여 질병과 건강영역을 포괄하는 체질건강지수(SHI : Sasang Health Index)를 개발한다면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望聞問切 사진의 영역별로 객관적 계측에 기반을 둔 건강수준지표 연구 및 진단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체질건강지수의 개발과 기기 개발 등의 실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 고령친화형 사상체질기반 진단/치료 기 개발 과제 중 오감형 한방 진단/치료 콘텐츠 개발(10028438)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외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4.
2. 허준.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3. 이제마. 개정판 원문대역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2003.
4. 유현희, 이시우, 이전, 이유정, 김종열. 문헌을 통한 맥상의 물리적 요소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6):1381-1387, 2007.
5. 이수현, 한성수, 최선미, 주종천, 김종열. 사상체질별 손등 피부 특성에 대한 임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1):15-18, 2005.
6. 이제마 저, 이도경 역편. 사상요람 증보판. 원불교 출판사, 1995.
7. <http://hanja.naver.com>
8. 이재철, 강남식, 이해정, 김종열, 김재욱. 전문가 진단에 기반한 10대 맥상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6):1077-1081, 2010.